

정업도장을 이루는  
모든 것 태명산업이  
함께 하였습니다.

TEL : (02) 433-9544  
FAX : (02) 433-9543  
H.P : (019) 278-1119

- ◆ 시달이점포
- ◆ 건설교통부 지정 공적으로 제작
- ◆ 시달이점포 851만
- ◆ 전수용 건물
- ◆ 계시관
- ◆ 옥간관
- ◆ 3차산업용 모리스
- ◆ 시달이점포 방지용 프레스를 제작하여  
본사 작업 사항은 무료로 드립니다.  
(규격 40m×10m)



- 자비의 등
- 통일의 등
- 기아 퇴치의 등
- 장애인 위한 등



◇부처님 오신날, 신사는 중생의 간절한 기원을 담은 연등으로 장엄된다. 사진은 서울 도선사.

'갯가지 등을 공양하여 얻는 공덕은 무량 하리라.' (법화경 약왕보살본사품)  
불을 밝히자!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찰마다, 거리마다, 집집마다 어둠을 밝히는 마음의 등불을 밝혀보자. 부처님 오신 날이면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는 서원으로 등불을 밝힌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자비 대지혜의 등불로 이 세상에 오셔서 무명의 어둠을 밝히셨듯이, 등불을 켜며 탐진치 삼독심으로 가려진 무명을 밝혀 부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다.

팔각등·만월등 등 다양

첨단 테크놀로지가 삶의 전 분야를 지배하는 요즘에도 등을 밝히는 마음은 예나 다를 게 없다. 연꽃의 모양을 본떠 만든 연등, 팔각등을 상징하는 팔각등, 원만함을 의미하는 만월등, 부처님의 한없는 복덕과 수명을 찬탄하고 자신과 모든 중생들의 수복을 기원하는 수복등, 불교의 법계를 형상화한 만다라 등 등 저마다 모양은 달라도 그것을 밝히는 마음만은 '부처님 마음'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이면 많은 불자들이 빈녀일등(貧女一燈)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찰떡 등을 단다. 그런데 불교에서 등 밝히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불교 역사에서 부처님께 등 공양을 하기 시작한 것은 아사세왕 이후의 일로 본다. 아사세왕은 아버지인 밍비사라왕을 죽여 왕위를 찬탈하는 등 악업을 지은 과보로 중병에 걸렸으나 부처님 앞에서의 참회로 병을 치유했다. 이에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아사세왕은 부처님이 가는 길에 수많은 연등을 달아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우라리 받들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신라 진흥왕 33년 국왕이 직접 초가한 가운데 외사(外寺)란 절에서 전경타에서 목숨을 잃은 군졸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7등(七燈) 연등을 보면서 마음을 밝히는 것이라는 이용으로 7일 동안 연등회가 열렸다고 <삼국사기>에 전한다.  
연등회는 불교가 가장 융성했던 고려시대에 들어 '순연등동광관(尊燃燈冬光關)'이라 하여 연등회와 팔각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절정을 이루었다. 국왕과 온 백성이 새봄을 맞이하는 2월 15일(부처님 오신날) 풍년을 기원하는 연등회를 개최하고, 추수를 마

친 11월 15일에는 팔각회를 열었던 것이다. 특히 고려의 연등회가 2월에 이루어진 것은 본래의 불교적 의미에 재래의 재천신앙과 농경의례가 부가된 것으로, 연등행사를 통해 재천신앙과 농경축제가 사회적 의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1500년간 종교문화 축제

고려말기 공민왕 이후에 이르러서는 2월보다 4월 8일 연등회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되는데, 집집마다 등을 밝히기 위해 수십일 전부터 아이들이 그 비유를 마련하기 위해 행하는 호기(呼旗)라는 풍습도 있었다. 연등회가 2월에서 4월로 옮겨지면서 민속놀이로서의 연등회가 부처님의 탄신을 기리는 경축행사로 전환되어 오로지 불교 행사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종교행사로서의 연등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시대에도 부처님 오신 날 등 밝히기는 계속되었다.  
이처럼 연등회는 신라 이래로 1500여년 간 우리 나라의 종교문화축제로서 행하여져 화합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들의 일체감을 형성하며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연등회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로 이어지고 있다. 옛날과는 달리 불교인만의 행사로 퇴색한 경향이 있지만, 전국민적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연등밝히는 신형의 축면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선우'와 같은 신형단체에서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을 밝히고 있으며, 통일을 기원하는 연등, 기아퇴치와 전쟁종식을 기원하는 연등,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연등, 장애인을 위한 연등 등도 선보이고 있다. 또 병원법당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 병실의 환자를 찾아 연등을 밝히고 있으며, 지하철법우에서도 매년 지하철 역사에 연등을 달아 오가는 시민들에게 부처님 오신 뜻을 전하고 있다. 연등축제가 개인적 차원의 연등 밝히기에서 한걸음 나아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집에서 등을 만들었으나 지금은 절에서 만들고 있는 것도 예전과 다른 점이다. 절에서 등을 만드는 것도 최근에는 상당수 줄어들어 기성품화된 등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시중에 완제품 등이 선보이면서 전통 우리 등에 대한 바른 식견없이 무분별하게 일본 왜색등을 제작판매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돈을 내고 등을 다는 것도 전통 연등회의 의미와는 다른 오늘날의 풍습이다. 그러다 보니 고가의 연등이 등장하고, 빈녀일

등의 의미가 확장하기도 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불자들도 많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전통등 재원을 통해 우리 등의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되살리고,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작업이 바로 그것이다. 97년 전통등 연구모임이 시달이 된 전통등연구회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우리의 등을 일반에 널리 보급하기 위해 인사동에 전통등 전문공방을 열어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도 한다. 봉축위원회는 이번 부처님 오신날에도 전통등 제작 공모를 통해 보다 다양한 우리 등의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깨달음의 지혜 닦는 일**  
연등을 밝히는 일은 단순히 불을 비는 일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지혜를 닦는 일이다. 등 공양 역시 부처님 오신 날뿐 아니라 매일매일 남을 위한 사랑과 자비의 실천행으로 승화해야 한다. 내 가족, 나 자신만을 위한 등 달기, 남이 다가가 나도 하는 의례적인 등 달기에서 벗어나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적극적인 자비 실천행의 등 달기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불자의 연등(燃燈)이다.  
이은자 기자(ejee@buddhania.com)

## 무명 밝히는 마음의 등불



◇등불을 켜며 탐진치 삼독심으로 가려진 마음을 밝혀 부처님께 나아가기를 서원한다.



◇지난 1월 봉축위원회가 주최한 '전통등 제작 강습회'에서 불자들이 등을 만들고 있다.



◇봉축 연등축제 현장에서 손에 연등을 들고, 거리에 나선 불자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행운의 달미도 순금카드**

나쁜 氣를 막아주고  
행운과 건강을 선물합니다.  
이제 당신의 지갑속에  
간직하시고 행운을 느껴보세요.

**인증서 획득**

제조판매원: (주)골드타운

10만 불자들의 신뢰를 받으며 한국순금카드4사(귀금드타운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 02)926-7377/7315  
(24시간 공휴일 접수함) http://www.goldsale.co.kr

**달미도 순금카드**

일반 지갑 소지용으로 함께 편 순금카드 앞면에는 오인법사의 달미도, 뒷면에는 반야심경, 사업번영부, 안전운전부, 시형합계대길부(4종류 중 선택가능)를 새겨서 비밀암자코팅함으로써 핏이되거나 구겨짐 없이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 ▶ 크레 (5×7.5cm) 20,000원, 스티 (3×5cm) 15,000원이며
- ▶ 각 스티 2개 구매시 특별할인하여 30,000원

**달미도 순금판 액자**

달미도 상반신 달미도 전신상

국내 최초 순금판 최대크기로 오인법사의 전신 또는 상반신 달미도를 고급 표구역자로 제작하였습니다.

- ▶ 표구역자 (27×33cm)
- ▶ 달미도 순금판 크기 (11×16cm)
- ▶ 일반판액자 150,000원 한정판매

**달미도 순금판 열쇠고리**

달미도 순금카드 (3×4cm)를 이크릴판 열쇠고리에 삽입하여 제작하였으며 1개 10,000원, 30개셋트 25,000원

\* 달미도 열쇠고리 뒷면은 반야심경 외에 사업번영부, 차량안전부, 시형합계부도 있습니다.

앞면: 달미도 뒷면: 반야심경

(주)골드타운은 불사보급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판매수익금의 일부분은 불사건립금으로 쓰여집니다.